

## ● 特 輯

## □□□□ 韓國 圖書館學의

## 反省과 展望 □□□□

金

世

翊

(梨花女大圖書館學科 助教授)

## 1. 圖書館學이란 用語 使用에 對하여

1966年度의 우리나라 圖書館學界에 對해서 생각할 때 圖書館學이라는 概念에 對하여 檢討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圖書館人들은 圖書館學이라는 用語를 別 다른 주저 없이 아무런 회의도 없이 使用하고 있으나 圖書館學이란 用語使用에 對한 社會的客觀性은 그렇지도 못 한듯 하다.

“圖書館學도 學問이냐?”

“그런 것 하기 위해서 大學에 4年이나 다녀야 하느냐?” 따위의 말을 우리는 흔히 들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 俗世의 俗人들의 無責任하고 無識한 말에 ——이 神經을 곤두 세울 必要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이 社會의 一般의 通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對해서 無關心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 나라에서 出版된 百科事典이나 言語辭典에서 “도서관학”이란 말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 현상은 우리 나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서관학의 역사 100년이 가까워 오는 미국이나 기타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별 다른 差異가 없다. 網羅의이고 權威가 있다는 “부리타니카”나 “아메리카나”에서도 “라이브러리 사이언스”란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1966年度版 웹스터 사전 第3版에 겨우 나와 있다. 이것도 1961年度 第2版까지는 勿論 나오지 않는다.

하도 新奇해서 여기 그 全部를 原語대로 紹介한다. library science is the study or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library care and administration or of any division of it (as bibliography or reference work)[註]

百科事典이나 辭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學問이 아니다 라는 論理는 成立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圖書館人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相當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認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美國이나 英國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圖

書館이나 圖書館學의 發展이 英美보다 훨씬 뒤진 獨逸에서는 “비브리오테크비센샤프트” 라는 말은 거의 아무런 抵抗을 받지 않고 있다. 有名한 “마이야”의 百科事典에는 벌써부터 나오는 말이다. 내가 지난 해 시카고 大學에 갔을 때 教育學을 擔當한 教授 한 분과 만나서 이야기 하던 중 그는 느닷없이

“나는 알지 못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大學에서 어찌서 新聞學과 圖書館學에 對하여 M. A. (碩士)學位 를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

教育學이라면 圖書館學과 가장 가까운 學問인데 教育學博士가 이따위 소리를 하니 아찔해질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시카고 大學 圖書館學校는 美國에서도 1, 2位를 다투는 名門이고 또 그 學校에서는 圖書館學의 碩士學位뿐만 아니라 博士學位까지도 주는 곳이다. 이 비롯없는 教育學博士와 充分히 討論하기에는 나의 英語實力이 너무 貧弱했지만 그런데로 그의 無識(?)을 어느 程度는 깨우쳐 준 셈이다.

이러한 曲折이 있으면서도 美國에서 圖書館學이 「存在」하고 또 다른 學問과 같이 나날이 「發展」해 가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카고 大學을 비롯하여 콜럼비아 大學 일리노이 大學 등의 여러 著名한 大學의 圖書館學校에서는 M. A. 뿐만 아니라 Ph. D도 주고 있다. 아직까지도 圖書館學을 認定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 못이지 결코 도서관학의 책임은 아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그들의 無識(?)을 啓發해 줄 善意의 努力만이 있을 뿐이다.

## 2. 韓國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成立過程

우리 나라에서 現代的 意味에 있어서의 圖書館學의 始作은 1946年 4月 1日에 開校한 國立朝鮮圖書館學校에서부터 비롯했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나는 現在 그 當時의 “커리큘럼”이나 “실러버스”를 가지고 있지 않

[註]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Springfield, Mass., Merriam Co., 1966.

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果然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또 믿고 있는 圖書館學—Library Science—이나 하는 點에 對해서는 나는 회의적이다. 그 學校는 6.25事變 때까지 78名의 卒業生을 輩出하고 廢止되었다는 것은 別問題로 치더라도 李在郁氏, 朴奉石氏 같은 先輩들이 그 學校를 設立한 目的은 우리 나라에 圖書館學을 導入하고 發展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解放된 우리 나라 圖書館을 日人들에게서 引受해서 그것을 運營하는데 必要한 技術者 即 Cataloger나 Classifier를 養成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 勿論 圖書館學과 圖書館의 運營은 密接한 關係에 있다. 圖書館學이 圖書館에서 일 할 수 있는 有能한 職員을 養成하는데 目的과 使命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圖書館學의 使命의 全部는 아니다. 圖書館學은 그 外에 學問이라는 또 다른 장르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날 우리 나라에서 圖書館과 圖書館學을 너무 지나치게 平面視하는 一部傾向에 對해서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中의 하나다. 目錄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우수한 司書라고 생각하거나 分類를 잘하면 가장 우수한 教授가 되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傾向이 있다면 이것은 年센스에 지나지 않는다.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 國立圖書館學校가 미약하나마 이 程度라도 發展한 오늘 날의 우리 나라 도서관학 하고는 別다른 有機的인 關係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即 韓國의 오늘 날의 圖書館學은 그 學校를 學問의 土臺로 하지 않았고 아는 바와 같이 1950年代부터 수입된 美國의 도서관학 적 조류가 그 시발점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1955年 梨花大學에서 마이너(副專攻)로 學部課程에서 始作했고 1957年 延大에 韓國圖書館學校와 正規大學課程으로 도서관학을 講義하게 되었고 1959년에 梨大에 그리고 몇 해 후에 中大과 成大에 도서관학과가 속속 생겨났다.

勿論 大學의 圖書館學科에서만 韓國의 도서관학이 形成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넓은 意味에서 學問이라 할 때 그것은 “에커데믹 스탠다아드”나 “에커데믹 레벨”이 있기 때문에 大學의 圖書館學科가 그 主軸이 될 것은 外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나는 이 小論을 叙述함에 있어서 4個 大學의 圖書館學科를 中心으로 말하고자 한다.

3. 四個大學의 圖書館學科의 커리큘럼編成에 對해서

커리큘럼의 編成을 보면 그 學科의 教育內容을 알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 學科의 教育目的을 理解할 수 있다. 커리큘럼의 計劃과 편성은 그 學科의 教育目的을 効果的으로 具現하게끔 짜여져야 하기 때문에 慎重한 檢討가 必要하다. 커리큘럼은 決코 教授中心으로

편성해서는 안될 것이며 커리큘럼中心으로 教授가 配置되어야 할 것이다.

歷史가 짧아서 不可避한 일이지는 하나 우리 나라의 圖書館學科의 教授陣編成에 있어서 教授中心의 커리큘럼이 構成되는 傾向이 더러 있다. 이제 10年의 歲月이 흐르고 어느 정도 基盤도 섰으니 확고한 教育課程에 따라 教授는 養成되고 配置되어야 할 줄 안다.

4개 大學의 커리큘럼을 적고 檢討해 보겠다. (設立年 度順)

A. 연세 대학교 도서관학과

과목종별	이수학년	과 목 명	주당 시간수	학점
전공필수	2	도서관학 통론	3	3
"	"	동양 전적 해제	3	3
"	"	한국 전적 해제	3	3
전공선택	2	아동 도서	3	3
"	"	음악 감상	2	2
"	"	미술 감상	2	2
"	"	타 자	4	2
"	"	초급 일본 도서 1	3	3
"	"	" 2	3	3
전공필수	3	도서관의 조직과 관리	3	3
"	"	자료의 선택	3	3
"	"	분류와 목록법 1	3	3
"	"	" 2	3	3
"	"	참고 봉사	3	3
전공선택	3	학교 도서관 봉사	3	3
"	"	인문과학 서지	3	3
"	"	도서관사	3	3
"	"	도서 및 인쇄사	3	3
"	"	서지학	3	3
"	"	고급 일본 도서 1	3	3
"	"	" 2	3	3
전공필수	4	도서관 실습	2주간동안교의실습	
전공선택	"	대학 도서관 봉사	3	3
"	"	공공 도서관 봉사	3	3
"	"	사회과학 서지	3	3
"	"	자연과학 서지	3	3
"	"	비책자 자료의 조직	3	3
"	"	목록의 특수문제	3	3
"	"	도서관봉사의 특수문제	3	3
"	"	음영 자료	3	3

(1964년도 학교 요람에 依함)

B.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과목종별	이수학년	과 목 명	주당 시간수	학점
전공필수	1	도서관학 개론	2	2
"	"	도서관사	2	2
"	"	한 문	4	4
"	2	분류학 개론	2	2
"	"	목록학 개론	2	2
"	"	원서 강독	6	6
"	"	학 문	4	4
"	"	타 자 술	4	2
"	3	서서 분류 편목	3	3
"	"	동서 분류 편목	3	3
"	"	도서 선택	3	3
"	"	학교도서관조직과운영	3	3
"	"	공공도서관조직과운영	3	3
"	"	아동 도서 선택	3	3
"	"	도서관과 사회	3	3
"	"	비도서자료	3	3
"	"	원서 강독	3	3
"	"	참고자료 및 참고사무	3	3
"	4	서적 및 인쇄사	3	3
전공선택	"	대학도서관조직및운영	3	3
전공필수	"	서 지 학	3	3
"	"	사회과학및자연과학서지	3	3
"	"	인문과학 서지	3	3
전공선택	"	Documentation	2	2
전공필수	"	시청각 자료	3	3
"	"	한국 서지	3	3
"	"	청소년 문학	3	3
"	"	중국 서지	3	3
"	"	실 습	6주간 4	

(1966년도 대학 안내에 의함)

C.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과목종별	이수학년	과 목 명	주당 시간수	학점
전공필수	1	도서관학 개론	4	4
"	2	도서관사	3	3
"	"	도서 및 인쇄사	2	3
"	2,3	원서 강독	8	8
"	2	분류학 개론	3	3
"	"	편목 개론	3	3
"	"	아동 도서	2	2
"	"	일본 도서	4	4
"	"	도서관과 사회	2	2
"	3	도서 선택	3	3

전공필수	3	동양 전적 해제	3	3
"	"	분류 및 편목 I	3	3
"	"	분류 및 편목 II	3	3
"	"	도서관 조직 및 관리	2	2
"	"	서 지 학 I	3	3
"	"	서 지 학 II	3	3
"	"	특수 자료의 조직	2	2
"	"	참고 봉사	3	3
"	"	학교도서관 운영	3	3
"	"	인문과학 서지	3	3
"	4	사회과학 서지	2	2
"	"	자연과학 서지	4	4
"	"	시청각 자료	2	2
"	"	공공도서관 봉사	3	3
"	"	대학도서관 운영	3	3
"	"	도서관 실무	3	3
"	"	독서 지도론	3	3

(1965—1966년도 대학 안내에 의함)

D.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과목종별	이수학년	과 목 명	주당 시간수	학점
전공필수	1	도서관학 개론	3	3
"	"	도서관사	3	3
"	"	원서 강독	2	2
"	2	자료 선택과 수서	3	3
"	"	기본 참고 자료	3	3
"	"	분 류 학 I	3	3
"	"	양서 목록	3	3
"	"	분류 편목 개론	2	2
"	"	도서관 관리	3	3
"	"	초급 일본 자료	2	2
"	"	미술과 음악문헌 서지중 택일	2	2
"	"	대학도서관관리와 학 교 도서관관리중 택일	3	3
"	3	양서 목록	4	4
"	"	분류학 II	3	3
"	"	인문과학 서지	3	3
"	"	사회과학 서지	3	3
"	"	서양 자료 서지	3	3
"	"	한국 자료 서지	3	3
"	"	비도서 자료	2	2
"	"	아동 도서	3	3
"	"	중급 일본 자료	4	4
"	4	과학 기술 서지	3	3
"	"	도서 및 인쇄사	3	3

전공필수	4	공공도서관 관리	3	3
"	"	시청각 자료	2	2
"	"	분류의 특수 문제	3	3
"	"	목록의 특수 문제	3	3
"	"	고급 일본 자료	3	3

이외에 打字와 實習이 學點 없이 있다. (1964—1965년도 대학 안내 영문판에 의함)

延大는 1學年에서는 專攻이 없는 것과 選擇課目이 많다는 것이 特色이고, 梨大에서 現場實習을 重要視하고 있고 Documentation 講座가 있는 것이 特色이라 하겠고, 中大는 分類編目을 重視하는것 같고, 成大는 書誌分野와 日語에 相當한 比重을 둔것 같이 보여진다. 그러나 根本的으로 大同小異하다.

대학의 커리큘럼을 보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목적 즉 어떤 사람을 길러 내고자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4개 대학 도서관학과의 커리큘럼을 比較檢討해 보면 각 대학의 현재적 사향을 알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의 도서관학 교육의 수준과 방향을 짐작 할 수도 있다. 勿論 커리큘럼의 타이틀만 보고 그것을 速斷할 수 없는 面도 있다. 왜냐하면 타이틀만 그럴사하게 걸어 놓고 具體的인 教育內容이 貧弱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개 大學의 커리큘럼에 나타난 현저한 樣相은 모두가 거의 同一하다는 것이다. 前述한 약간의 差異와 特色은 있을지라도 4개 大學이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을 編成하고 있는 點에 우리는 注目할 必要가 있다. 그 理由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그 理由를 檢討함에 있어서 歷史的事實을 알아 볼 必要를 느낀다.

첫째 한국의 大學 도서관학과는 미국의 直接的인 影響을 받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한국의 도서관학은 적어도 「유니버시티 레벨」에서 시작한 것은 1950년대에 연세대학교와 이화대학교에서 도서관학이 講義되면서부터 始作되었다. 具體的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아는 것이지만 美國人教授 또는 美國에서 教育 받은 韓國教授에 依하여 始作되었다. 그래서 美國式 도서관학이 圖輸入된 것이다. 그것은 그런대로 옳은 일이었다. 거의 황무지였던 우리 나라 도서관학 분야에 先進한 나라(어쩌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水準을 이루고 있는) 美國의 도서관학을 받아 들이는데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다. 그러나 도서관학과는 모두 大學教授나 學者를 養成하는 것이 아니라 一線에서 도서관 봉사 實務를 擔當할 이른바 有能한 司書를 길러내는 일이 더욱 切實하고 緊急하다. 그리하여 대학에서 길러 낸 이른바

學士司書가 그 동안 많이 輩出되어서 一線에서 實務를 擔當하고 있는데 그들에 對한 一般的評價는 樂觀의 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 對한 善意的 批判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몇 해 동안의 實驗을 우리는 해 보았다. 지금은 韓國의 大學 도서관학과 的 教育課程을 檢討하고 再構成할 時期에 이르렀다. 우리가 美國式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現 커리큘럼은 事實은 5, 6年前的 美國의 그것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冷靜하게 認識해야 한다. 百餘個 있는 美國의 라이브러리 스쿨의 커리큘럼은 一律的이 아니고 多樣性이 짙다. 그리고 現在 Information Storage와 Retrieval 等的 Information Science의 分野가 많이 導入되었고 도서관학 그리고 도서관 자체의 概念이나 이미지가 달라져 가고 있다. 또한 구라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학의 形態와 思想에 對해서도 注意해야 한다. 한국의 도서관학과는 學問의 水準을 높임과 同時에 한국의 현실에서 要求하는 바람직한 司書를 養成해 내야 한다.

세해 1967년도에 바라고 싶은 것은 圖書館學會의 組織과 活動 또 그것을 中心으로 하는 圖書館學 擔當教授들의 相互研修機關과 期會를 갖고 싶다.

英國의 런던 大學師範大學에 있는 圖書館學科에서는 每年 英國各地에 散在한 圖書館學科教授들을 위한 研究會가 40日間 繼續된다. 내가 1965년에 이에 參加하고 알게 된 것은 그 講義와 討議內容이 가장 up-to-date한 Documentation의 理論이었다. 即,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英國(구라파는 다 그렇지만)에서는 大學教授들을 爲한 高度의 세미나가 L.A.의 協力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Library Science가 그 性格에 있어서 Documentation的이 되어 간다는 것이다. 우리 KLA에서도 이런 機會를 마련해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아직도 土臺를 마련하는 時點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우리 나라 圖書館學界가 解決해야 할 問題가 許多하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時日이 必要할 것이다.

또 學問이라는 것은 언제나 若干씩 現實보다 先行하는 法이다. 우리는 韓國의 도서관학의 最大公約數를 發見하기 爲하여 大學에서 館界에서 모두 善意的 協力과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圖書館의 發展없이 圖書館學만 發展할 수가 없다. 또 圖書館學의 根據없이 새롭고 機能的인 圖書館의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